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69

2013. 06. 14.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 ·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심경미 부연구위원

■ 요약

-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 · 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 · 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준 재고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정책제안

- 시 · 군 · 구 단위의 주택관리지원센터와 지역중심의 주민센터 내 '주택 유지 · 관리팀'(가칭)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 혹은 한국형 "HomeWise" 프로그램 등 국가차원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문인력 대상의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시행
- 저층주택 유지 · 관리 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사업체 양성을 위해 공공지원사업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며 지원사업이 포괄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방식 개선
- 주택의 종합적 ·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해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주택 유지 · 관리 규정을 단일화하는 「주택 유지 · 관리법」(가칭) 제정

1 배경 및 필요성

■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정책으로 주거유형 획일화 가속, 사회적 문제 야기

- 최근 수십 년 간 아파트 일변도의 공급 및 건설과 기존 저층주거지의 전면철거 주거지정비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주거유형의 획일화 가속
 - 서울시의 경우, 1970년 전체주택의 88.4%에 해당하던 단독주택은 2005년 기준 19.8%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4.1%에서 54.3%로 증가. 전국적으로는 2008년을 기점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앞서기 시작

전국단위 주택유형별 변화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단독주택	7,064,128	(44.5%)	7,059,546	(42.9%)	7,004,422	(40.4%)
아파트	6,628,993	(41.7%)	7,215,050	(43.9%)	8,162,588	(47.1%)
연립주택	526,948	(3.3%)	537,608	(3.3%)	786,728	(4.5%)
다세대주택	1,168,481	(7.4%)	1,177,971	(7.2%)	970,922	(5.6%)
기타	498,578	(3.1%)	449,792	(2.7%)	414,898	(2.4%)
계	15,887,128	(100%)	16,439,967	(100%)	17,339,558	(100%)

출처 : 통계청 통계정보 국내통계

- 기존 저층주거지 전면철거 정비방식은 유용한 건축자산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문제와 함께 사용가능한 기존 재고주택의 감소, 지역주민 커뮤니티의 와해 등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 은평구 진관내동의 한양주택, 용두동 장미골목 등 문화적 자산과 장소적 가치(건축물, 골목길 등)가 높고 주민들의 지속거주의사가 있는 양호한 저층주거지마저도 전면철거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유용한 건축자산이 일시에 소멸되고 있는 실정

■ 민간 주택시장 왜곡 및 유지 · 관리 시스템 미비로 노후화 가속, 거주편의성 저하

- 단독주택 등이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민간의 주택산업시장 역시 대규모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구조가 왜곡
 - 동네의 철물점이나 집수리 기술자들은 점차 영세화되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왜곡된 주택산업시장으로 작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만족할만한 공사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아 잦은 분쟁이 발생
 - 집수리의 질적 저하로 춥고 불편한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을 감수하고 있으며, 심각할 경우 건물이 노후 방치되고, 일부지역 공가까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야기

- 저층주거지 유지 · 관리 시범사업은 일부지역에 지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도로정비나 공용시설 설치, 담당 등 경관요소 개선 위주로 진행
 - 사실상 저층주거지 거주자들은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더 큰 문제로 인식, 이러한 불편이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아파트 위주의 주택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

■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 ·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시스템 미미

- 국내 주택의 유지 · 관리 제도 대규모 건축물 대상의 「건축법」과 공동주택 대상의 「주택법」으로 이분화
 -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한 관리방법 및 관리사무소 등에 의한 전문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 ·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와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점검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
-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 · 관리를 위한 정책전환 및 제도개선 필요
 - 현행 건축물 유지 · 관리 제도는 주로 안전과 화재 등 기본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 성능수준, 에너지효율 및 자원 보전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미비
 - 또한 유지 · 관리 대상도 대규모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20세대 미만의 중소형 주택의 유지 · 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환경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의 기존 재고주택의 개보수 및 유지 ·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2 저층주거지 유지 · 관리 관련 최근 정책동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2012.2.)
 - 이를 근거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단독주택지 등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 2항, 제37조, 제60조)

- 「건축법」에 양호한 주거지의 보존을 위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및 ‘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의 설치 관련 규정 신설 입법예고(2012.3.)
 -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제외)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제3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지속
 - 2003년 진안군이 최초로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근까지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 2012년 현재 전국 23개에 이룸
 -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7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
 -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구 단위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해피하우스 사업사업’ 2012년에 중단
 - 해피하우스 사업사업은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보전을 통한 ‘살기 좋은 주거지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에 유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단독주택은 거주자들이 주택개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별로 설치된 주택관련 종합서비스센터를 통해 추진된 사업
 - 주거복지와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현재 국가지원예산이 중단된 상태로 동일한 명칭의 사업으로는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음

3 국내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현황 및 수요 현황

■ 관련 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본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관련 지원조직은 공공주도형으로 ‘전주시 해피하우스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주도형으로 ‘두꺼비하우징’과 ‘장수마을 동네목수’가 대표적

- 공공주도의 지원센터는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마을단위의 종합적인 주거지관리에는 한계
- 민간주도의 지원센터는 유상수리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공공발주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 안정화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주택 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상지불의사가 적어 민간시장에 의한 관리방식 도입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 에너지성능 향상과 관련한 부처별 사업이 연계되어 포괄지원을 통해 한 가구에 중복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주택성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가운데 주거복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일자리 알선,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지원에 한정.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주거지 물리적 환경개선 등 통합적 주거지 환경개선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

■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현황 및 수요 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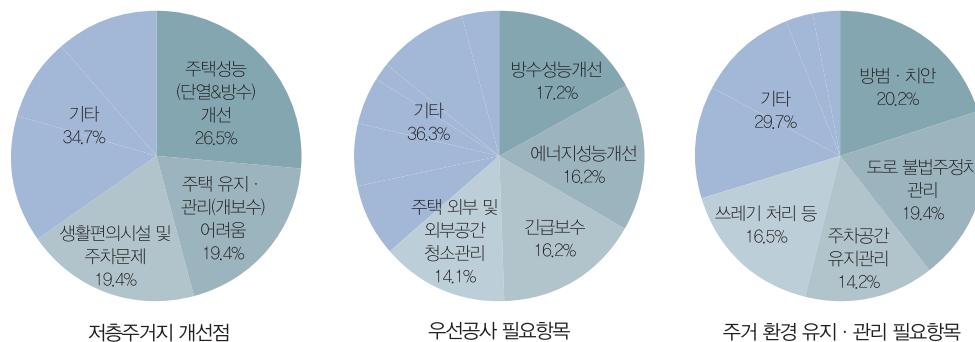
- 저층주거지 주민특성은 자가비율이 높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다수 거주
 - 60세 이상이 53.1%, 자가 소유자가 70.9%, 11년 이상 거주자가 58.7%를 차지
 - 대부분 20년 이상, 길게는 40년 이상 된 노후한 주택들이 많아 단열 등 생활편의성이 크게 떨어짐. 그러나 오래 거주한 곳일수록 생활의 불편함과는 별개로 거주 주택에 대한 애착이 높고 지속거주의사도 높게 나타남
- 저층주거지 주택 만족도는 40.3%가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은 14.3%에 불과. 주택 성능에 있어서는 단열에 대한 불만(4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지 보수 용이성(27%) 순으로 나타남
- 주택 개보수 현황으로는 긴급보수 및 간단수리가 가장 많았으며, 기본시설 유지·관리 및 방수공사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공사 후 만족도는 보통 수준(54.6%)
 - 동파 및 누수 등 긴급보수 및 간단수리, 도배와 장판 및 방충망 교체 등의 기본시설

1)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월곡2동, 전주시 금암2동을 대상으로 약 200여부의 설문조사 결과 및 거주민 심층면담조사 결과임

유지 · 관리를 가장 많이 시행. 방수공사도 빈번

-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공사는 필요성 인식에 비해 비용부담과 공사 후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공사시행 빈도는 실제로 낮은 것으로 조사

- 주택개보수시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부담과 공사업체 정보부족이 가장 높음
 - 거주자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노후도가 심해져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과 함께 공사결과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음
- 저층주거지 개선사항으로 생활편의시설 부족이나 주차 문제보다도 단열, 방수 등의 주택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우선공사 항목으로는 방수성능개선에 대한 요구가, 주거지 환경 유지 · 관리에서는 방범 · 치안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공공에 대한 지원요구로는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긴급보수 지원,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저층주거지 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향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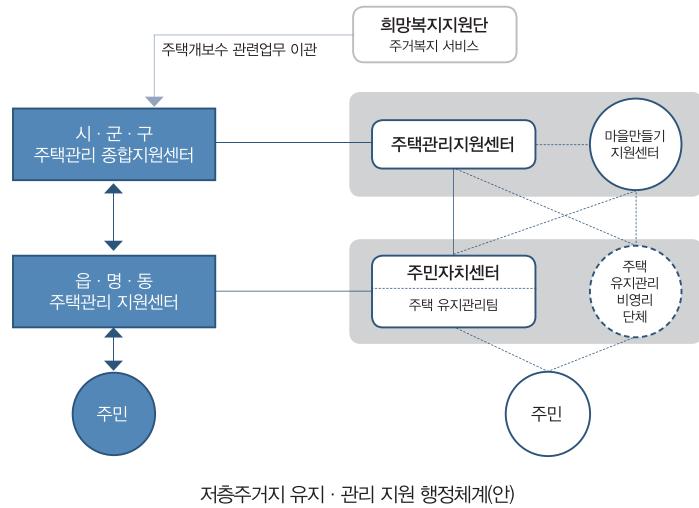
4 정책 제안

■ 저층주거지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의 배치, 운영

- 지역중심 차원과 시 · 군 · 구 차원의 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 마련
 - 일차적으로 지역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또는 지역중심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지원사

업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운영, 업체 및 주택 이력관리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화를 위해 시·군·구 차원의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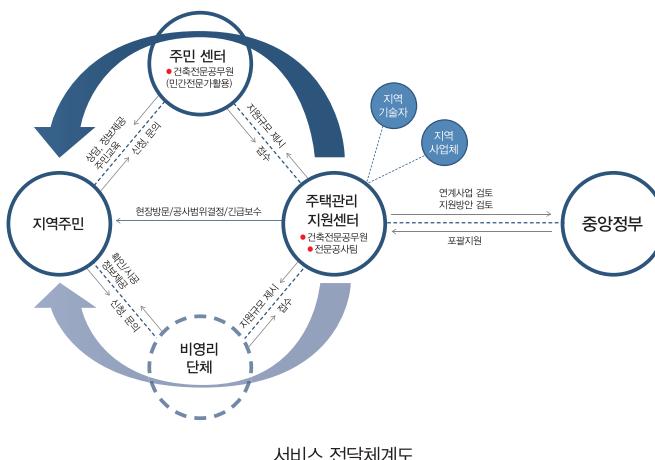
- 건축법에 입안되어 있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고, 지역중심의 주민센터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한 전문팀(주택 유지관리팀 혹은 마을관리팀(가칭))을 설치



저층주거지 유지·관리 지원 행정체계(안)

• 주민센터와 주택관리지원센터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화

- 주민센터의 주택 유지관리팀은 소득 등 거주자특성과 상황을 판단하고, 주택 개보수 관련 상담, 관련업체 정보 및 주택 개보수 매뉴얼 등을 제공, 관련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 공공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지원센터와 수혜자를 연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은 시·군·구 단위의 주택관리지원센터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사항과 관련된 공사 및 필요한 공사범위를 확인후 연계가능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지원방안 및 범위를 확정하여 주민센터에 통보



- 주체별 역할

- 시·군·구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민센터의 주택 유지관리팀을 총괄 관리하며, 더불어 긴급수리 및 간단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팀을 두어 공공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과 함께 주택 및 사업체 개보수 이력 DB구축 및 관리, 주택 유지·관리 지표개발 등 건축행정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법률상담 등의 역할
- 주민센터내 주택 유지·관리팀(가칭)은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상담창구 역할로서, 소요비용 및 개보수 방법, 관련 자재 등에 대한 상담과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활동에 대한 협조역할을 수행

■ 관련 사업체 DB구축 및 사업체 양성을 위해 공공지원 사업수행 시스템 개선

- 주택관련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업체 DB를 구축, 관리
 - 지역기반의 집수리 관련 기술자들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금감면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
- 지역기반의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성능향상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사업수행 시스템을 개선
 - 공공지원에 의한 관련사업 수행시 공개경쟁입찰로 기술자격기준을 가진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현 기준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

■ 주택성능향상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포괄지원 운영 개선

- 동일 가구 내 중복지원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등의 사업실적평가 방식을 지원가구수가 아닌 실제 에너지절감지수(관리비 절감비용 등)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
- 각 부처별 지원사업의 공지, 신청접수, 대상가구 선정,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을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운영체계를 일원화
 - 지원사업의 공고 일정이 상이하고, 지원 수혜자도 주민 외에 시공업체에 직접 지원해주기도 하여 포괄지원에 한계. 이를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자 및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년차별 계획에 따라 포괄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

■ 전문인력 대상의 체계적인 정기교육 중앙정부에서 시행

- 주택 개량 및 에너지성능 등 공사 필요범위와 가능범위 판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관련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정기교육을 시행
 - 미국의 경우 전담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에너지성능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BPI(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교육을 실시

■ 저층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및 개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

-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건축행정 가이드로 활용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물별, 주요 항목별 수선을 위한 유지·관리 지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기존 주택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 항목 표를 마련하여 운영 중
 - 저층주택 공통사항 및 주택유형별 특이사항별로 유지·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주택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지원을 위한 건축행정 가이드로 활용

※ 일본의 Smile 주택안심네트워크(Smile 住宅安心ネット)

- 일본의 Smile 주택안심네트워크는 「주 생활 기본법」,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년 주택"을 목표로 기존 주택의 수명 향상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뢰성 있는 주택안심 사업을 수행
- Smile 주택안심네트워크는 법인 비영리단체 활동에 관한 사업의 하나로, 회원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 정기점검, 유지관련 상담, 주택이력정보 작성과 보관 등을 수행함. 주택 수리의 경우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실비 지불), 정기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실시함. 또한 주택 유지보수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이력정보를 작성하여 DB를 구축, 관리하고 있음

- 저층주택 유지·관리 관련 매뉴얼 제작, 발간 및 배포
- 지역의 공공건축가(또는 동네건축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저층주택 유형별 유지·관리 매뉴얼을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무료로 공급

Home Wise

Basic tools for home care

Use the right tool.

It i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tool for the job. For example, a screwdriver can damage the head of a screw. Using a screwdriver in place of a chisel or pry bar can damage the screwdriver.

The tools listed below are some of the most useful for the basic home care and repair tasks in this manual.

As you begin to do more complicated tasks, you will find that you need to add certain tools such as a crowbar or a certain type of saw. These can start at your local hardware store or lumber yard. It helps to select tools you need to buy or rent for a particular task.

Quality can be important in choosing a tool.

It is also important to get good enough quality tools to do the work. For example, some screw drivers are made of metal that chips easily or that bends when you apply pressure to turn a screw. Better quality screw drivers will not do this. In fact, some are guaranteed so you can return them to the store that sold them for a replacement. Keep the receipt for your records (see Record keeping: What to keep, where to keep it).

Locking pliers

Some basic tools

Hammer, claw - 16 ounce
Pliers
Penny knife, flat-bladed and stiff, 1 1/2 or 2 inches wide
Level - 2 foot
Wrench, adjustable - 10 inch size
Screwdriver, Phillips head - number 2
Screwdriver, flat bladed - number 2

Prepared by John Merrill, extension housing specialist, UW-Madison.

R-02

Home Wise

Getting started

Siding care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will help care for the siding on your new home. Unless indicated, suggestions apply to aluminum, steel, vinyl, and wood siding.

Keep siding clean.

- Wash siding every year with cold water. Use a soft brush to loosen dirt. A long-handled garden washing brush that fits over the end of a garden hose makes the job easier.
- Start from the bottom and work up, to prevent streaking.
- For hard to remove dirt, wipe down the siding with:
- For vinyl siding if this does not work, increase the household cleaner to ½ cup and add ½ cup laundry detergent.
- Rinse siding well with clear water.

Remove mildew.

Dark spots near the ground or under overhang in shaded areas may be mildew. To remove mildew:

- Add 1 quart of household bleach to the cleaning solution above for vinyl siding (see the caution below).
- Protect shelves from contact with the bleach solution by covering them with clear plastic.
- Scrub pets with the bleach solution, then rinse siding well with clear water.

Caveat: Be sure the household cleaner you use in this mixture does not contain ammonia. Ammonia can form a poisonous gas when mixed with the chlorine in bleach.

27

Outdoors

미국의 HomeWise 거주자를 위한 간단집수리 매뉴얼

출처 :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www.uwex.edu)

장수마을 이야기 3월호

집수리 101

『집수리 101』, 101(원우우한)이란 「기초의」, 「일문의」라는 뜻입니다.

불편(는)가 찾아오는 불철... 지붕 흙통의 불량으로, 지붕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흙통 기둥을 상실하여 지붕 내부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운 잘못하면 든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지붕 배수구가 의심된다면, 흙통 보수- 지금 하세요. ^^

[지붕 출동 보수법]

• 흙통 보수기 미흡아면

• 흙통이 악어거나 보수가 불량하는 이유는?

- 기준에 (지하 / 건축물 부위 철거) 미흡하여 선종통 막힘
- 지나친 강수량에 의해 흙통의 기능 상실
- 지붕 흙통 구래 불량으로 인해 애탈 듯함

Tip - 비울 때 지붕에서의 물의 흐름
지붕 → 차기흙통 → 연결(L형 등) 흙통 → 선종통 → 나수받이 물 (or 토목 우수관)

• 어떤 순서로 고쳐야 할까요?

(1) 천장판, 차밀발판 청비
(2) 천장판/선종통 청소
(3) 차운, 부위 보수
(4) 구래 흙통 보수 보수
(5) 완료

* 출처 : 각 인터넷 블로그 사진 참고

장수마을 이야기 3월호

집수리 101

『각 순서별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순서	내 용	세부 작업사항 / 유의 사항	사용공구	비고
1	안전한 작업 발판 준비 <BT 이미지> <스스로 작업대>	1. 지붕 높이에 따른 작업 발판 2. BT바이저/ 고소작업대/ 우비 등 3. 사다리와 함께 텐트지 고인경계	가설 발판	
2	처마흙통 상태 확인 및 청소 <BT 이미지>	*반드시 차운 유의하여 작업 1. 차운통 사용장 세기 2. 선종통 분체 및 이물질 세기 3. 선종통 세로워	장갑, 청자루(수)	
3	파손 부위 보강 <BT 이미지>	1. 파손 부위 비우고 청리 2. 보수재판 사용장 세기 (ex. 베란다드/유동재료, 페인트) ■ 물 등을 사용해 점착력 점검	사포, 보수재판 (흙통과 같은 재료), 베록시멘트 등	
4	구래 흙통 보수 <BT 이미지>	1. 연결관통 이용 차마흙통 고정 (약 90cm 긴쪽) 2. 경사각수 : 1/20 ~ 1/50 3. 연결관통(총길이 등) 이용	연결관통, 나사못, 치감나사, 드릴 및 드라이버	
5	완료 	1. 차운부위 및 구래 보강 완료		

장수마을 소식지의 「집수리 101」
출처 : 장수마을 홈페이지 | <http://samsun4.tistory.com/65>

■ 주택 개보수 수요창출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실시

- 노인계층을 위한 무장애공간 조성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노인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택 개보수는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어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저층주거지에 60세 이상의 노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약자 맞춤형 집수리 사업’(가칭)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신설하여 운영
- 한국형 “HomeWise” 프로그램 마련, 운영
 - 여러 부처에서 시행중인 관련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각각의 지원사업의 목적이 약간씩 상이하므로 미국 시애틀의 HomeWise나 킹카운티의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등 집수리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5 법·제도 개선 방안

■ 주택 개보수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주택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택행정정보와 자료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포함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6조를 개정

■ 주민센터내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센터 내 건축·도시 관련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련팀을 신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 필요한 지역 모두 평등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
- 별정직 공무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확대

■ 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실효성있는 주택 개보수 용자지원 및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업무편람에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용자한도 기준과 이자율 기준을 개정
 - 주거환경개선자금의 현 융자조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임. 서울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신축 2%, 개량 1.5%로 저리융자지원 실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주택개량 용자 지원 조항 및 주택개량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용 조항 추가
 - 저층주거지 대상 시범사업에서 경관적 측면에서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이 지붕, 담장과 관련한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
 - 주거환경관리사업 수행시 주택 개보수와 지붕, 담장 등 지역 경관향상과 관련한 부분의 수리비용 지원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

■ 주택 유지 · 관리를 위한 단일 법률 「주택 유지 · 관리법」(가칭) 제정

- 주택의 안전과 화재, 설비를 포함하여 성능향상과 에너지 효율 등 주택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해 단일 법률 제정으로 관련 규정들 체계화할 필요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서,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유지관리는 건축법의 주택관리센터에서 다루게 되는 등 관련 규정이 상호 유기적이지 못하고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

심경미 부연구위원(031-478-9654, kmisim@auri.re.kr)

